

럭키  
에이  
사  
소  
식

**에스·티·엠**  
럭키와 CAD/CAM시스템 용역 계약 체결



金永泰 사장

에스티엠(대표:金永泰)이 (주)럭키의 CAD/CAM시스템 도입 및 운용에 협조키 위해 지난달 1일 럭키와 CAD/CA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同社は CAD/CAM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앞으로 8년간 럭키에 CAD/CAM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 同社は 럭키에 설치되는 CAD/CAM 시스템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의 금형설계 및 생산을 자동화해 제품의 공기단축과 제품 질적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쌍용컴퓨터**  
PC-NIU 생산 개시



朴炳哲 사장

쌍용컴퓨터(대표:朴炳哲)가 네트/윈 LAN용 시스템보드인 PC-NIU의 생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주문형반도체인 게이트어레이를 사용, 기존제품보다 크기가 대폭 축소된 반면 처리속도는 20%이상 향상 됐으며, 타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올해 1만대의 PC-NIU를 생산할 계획인 同社は 이미 일본에 500대를 수출했으며 곧이어 200대를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

**삼성데이터시스템**  
전선으로 정보전달 가능, SECOMMⅢ 개발



全相昊 사장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全相昊)이 전선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한 통신용소프트웨어 SE-COMMⅢ를 개발했다.

SECOMMⅢ은 지난해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다이얼링 모뎀에 정착, 지난달부터 수출하고 있다.

## 한국전기통신공사 HCD와 TRS의 강화



李祐在 사장

한국전기통신공사(대표:李祐在)가 고국교환직통전화서비스(HCD)와 주파수공용방식 이동무선통신서비스(TRS)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同社は 지난 5월부터 美·日 2개국에 대해 전국 1백 3대 전화기를 통해 서비스중인 HCD를 올림픽경기장·선수촌

등을 중심으로 총4백대로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가능국가를 확대키 위해 영국·홍콩을 비롯한 국가들과도 교섭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 대우통신

### DU-3040 개발, 시판



朴成圭 사장

대우통신(대표:朴成圭)이 최근 대우전화기 '유니폰'의 새 모델 DU-3040(사진)을 개발 시판하고 있다.

새로 선보인 DU-3040은 기존의 전화기와 달리 직사각형을 기본으로한 대담한 모양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일명 'M폰'이라고도 한다.

DU-3040은 채다이얼 기능·대기기능·온후기능등이 있으며, 색상은 파스텔조의 적색·흑색·백색·황색·분홍색·녹색이다. 소비자 권장가 42,000원.



### 초고속 팩시밀리 SF-725 시판

한편, 대우통신은 한번의 조작으로 동일원고를 100개소까지 송신할 수 있는 SF-725 동보 팩시밀리를 시판하고 있다.

SF-725는 국내 최대 메모리 용량(A4 표준원고 40매, '옵

션 81매)으로 그룹 동보, 시각 지정 동보, 예약송신이 가능하며, 전송데이터의 메모리가 가능한 초고속 팩시밀리다.

## 전전자식교환기 TDX-1A 백령도에 설치

대우통신은 또한 최근 울릉도에 이어 백령도에 TDX-1A 전전자식교환기를 설치했다.

이번의 설치로 과금·통계·호처리 등의 관리·유지보수 등 백령도 전화교환체제가 원활케 되었다. 또한 고품질·다기능의 통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同社は 지난 3월부터 정부의 도서벽지 근대화계획에 따라 웅진군의 TDX-1A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도서지방 전전자식 교환기 공급사업에 나서고 있다.

## 매일경제신문사

### 동방생명에 「日経 텔리콤」 개통



매일경제신문사(대표:張大煥)가 최근 동방생명에 「日経 텔리콤」을 개통했다. <사진>

同社の 日経텔리콤 개통으로 동방생명은 세계의 경기·상품·주식·금융·외환·반도체·기업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신속히 입수하게 된다.

## 유니온시스템

### 提携社 방문위해 度美



宋炳南 사장

유니온시스템 宋炳南사장이 지난달 6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수사관련기기 전시회를 참관하고 업무제휴선인 메데이포인트를 방문키 위해 지난달 5일 출국했다.

## 한국데이터통신 데이콤넷 전송속도 고속화



李 膺 孝 사장

한국데이터통신(사장 李膺孝)이 최근 고도정보통신의 수요증대에 대비, 현재 3백, 1천 2백 2천 4백, 4천 8백, 9천 6백bps 등 5종류로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콤넷의 전송속도를 오는 90년초까지 최고 56Kbps로 고속화시키기로 했다.

데이콤넷의 전송속도가 56Kbps로 고속화되면 다이얼로그·가이스코 등 해외정보은행에 입력된 각종 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되며, 가입자간의 정보처리가 훨씬 빨라진다.

同社は 앞으로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군단위까지 다중화장치를 보급, 가정과 사무실에서도 국내 및 해외 관련 정보를 즉시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대전자 고속 256KD램 量産



鄭 夢 憲 사장

현대전자(대표 : 鄭夢憲)는 최근 60나노초(10억분의 1초)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는 2백 56KD램을 개발, 지난달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256KX1과 64KX4의 2가지 종류로 CMOS 기술을 채택, 일반 2백 56KD

램보다 1/10이상의 전력 소모로 처잡음특성이 뛰어나며,

패스트 페이지의 어드레스모드를 갖고 있다.

현재 상품화되고 있는 D램의 속도는 1백20~1백50나노초(6~8MHz) 수준.

同社は 앞으로 컴퓨터의 대용량화, 고속도화에 맞추어 고집적 및 고속메모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 삼성반도체통신 초고속 2백 56KS램 개발



姜 晉 求 사장

삼성반도체통신(대표 : 姜晉求)이 자체기술로 세계최첨단의 초고속 2백 56KS램을 개발, 시제품의 생산에 들어갔다.

2백 56KS램은 1MD램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메모리로 텅스텐실리사이드의 이중금속배선 기술을 채택, 16나

노초의 초고속정보처리속도를 실현시켰으며, SLOW S램(1백~1백20나노초)에 비해 속도가 6~8배 빠르다. 또한 기존의 FAST S램에 비해 전력소모가 1/5정도인 것이 특징이다.

### 編輯後記

지난 3월 발표된 전산망 기술기준 예고안은 당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그러나, 그후 民·官 협력 하에 재작업에 돌입, 수정을 거쳐 지난달 협회가 주최한 공청회가 특별한 이의 없이 끝남으로써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태어났다는 것이 중평이다.

수정작업에 업계가 열성적이었던 점이나 체신부측 또한 이번처럼 유연한 태도로 利害當事者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일도 드문 일로, 앞으로도 모든 제도의 개폐가 국민과 합의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

×

정보통신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국내의 표준화 활동상황과 동향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월 표준화 추진 합동토론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여기서 볼 때 표준화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며, 정보통신 振興의 사명을 맡고 있는 협회의 임무 또한 크다 하겠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기사로 독자를 대할 것을 약속드린다.